

결핵의 표상과 생명정치

—잡지 『요양촌』을 중심으로*

허병식**

|| 차례 ||

1. 결핵 담론의 도입과 해주구세요양원의 설립
2. 결핵의 낭만적 표상과 과학주의
3. 잡지 『요양촌』의 결핵담론
4. 잡지 『요양촌』의 글쓰기 공간
5. 생명정치와 근대적 주체형성

[국문초록]

결핵은 일제시대의 대표적인 질병이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해주구세요양원이었다. 이 요양원은 1928년 3월 기독교조선감리교회 선교사 하락의 창설로 개원되었다.

『요양촌』에는 결핵에 대한 의사들의 논문과 환자들의 투병기, 여배우 등과 같은 유명인의 격려편지, 그리고 문예 기사가 실려 있다. 이 잡지에 실린 글들은 과학주의에 기반한 결핵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잡지 『요양촌』이 매호 발간시에 가장 중점을 기울여 게재하고 있는 것이 「폐결핵과 공기」(제1호), 「일광요법과 자외선 광선요법」(제2호), 「폐결핵과 '비타민」(제3호), 「결핵과 유전」(제5호), 「각혈과 그의 처치」(제7호) 등 결핵에 대한 예방, 요양, 치료에 대한 전문의사들의 논문들이라는 점은 이 잡지가 지니고 있는 위상을 짐작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요양촌』은 질병에 대한 계몽적 지식의 전달과 환자들의 정보 교환을 위한 담론 공간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 잡지는 위생과 질병에 대한 당대의 담론을 선도하는 의료정보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요양촌』에는 실제 환자와 의사들만 아니라 이태준, 임화, 박태원, 송영과 같은 기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8017773)

** 동국대학교 국문과 monogata@naver.com

성 작가들이 시, 소설, 희곡, 수필을 쓰고 있다. 이들 자신이 폐병이라는 병의 메타포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핵에 대한 인식과 표상의 구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해주요양원에서 발간된 잡지에 문예를 연재함으로써 독자 대중에게 미치고자 한 영향을 살필 수 있다.

해주구세요양원은 국가가 설치한 기관은 아니었지만, 제국주의의 통치와 기독교의 선교가 연계하여 설치한 통치의 장치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요양촌』은 결핵이라는 병을 다스리는 식민지의 관리자들과 담론과 결핵요양원에서 관리되는 주체들이 자신들의 육체를 인식해가는 과정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산출하는 장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결핵, 요양촌, 해주요양원, 질병의 표상, 질병관리, 생명정치, 제국주의

1. 결핵 담론의 도입과 해주구세요양원의 설립

조선에 서양의학이 유입된 경로는 크게 미국과 일본으로 나뉜다. 미국은 기독교 복음 전파를 위해 의료선교사를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파견하였고, 이들은 자신의 목적 수행을 위해 의료를 활용해 나갔다. 제중원은 선교사들의 가장 큰 성과물이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미국식 의학보다 조선에 먼저 유입된 것은 일본 의학이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급속히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던 일본은 자신의 영향력을 조선에 확대시키는 방편으로 자신이 선차적으로 수용한 서양의학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¹⁾ 메이지 15년(1882) 코호가 결핵균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 내무성 위생국은 폐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게 되어, 메이지 18년 발행한 『第四回統計年鑑』에서 ‘위생’에 관한 여러 통계 속에 ‘폐병’의 항목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²⁾ 조선에서도 병독, 세균 또는 미균으로 표현된, 작은 미생물이 병을 일으킨다는 세균설은 1899년 내부 위생국에서 반포한 각종 전염병 관리 규칙의 바탕이 되었으며, 이후 『체국신문』이나 『황성신문』에서 제기한 각종 논설 또한 이 같은 세

1) 박윤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해안, 2005, 48면.

2) 福田眞人, 『結核の文化史-近代日本における病のイメージ』, 名古屋大學出版會, 1995, 47면.

균설에 바탕을 두었고, 그것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전의 모호한 병인론인 장기설에 비해 세균설에 입각한 검역 대책은 가시적인 세균, 과학적으로 밝혀진 세균의 서식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검역 활동이나 개인위생 실천을 더욱 단호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동력을 얻은 것이다. 이는 일제가 전염병 관리라는 이름으로 식민지의 조선인 감시를 강도 높게 시행하는 기반이 되었다.³⁾

1877년 일본이 설립한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부산의 제생의원과 미국인 선교의사 알렌이 고종에게 건의하여 1885년 설립한 제중원에서 이미 결핵성 질환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당시는 서양의학에서도 결핵치료법이 불확실했으므로 결핵환자의 대부분이 한방이나 민간요법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많으며 결핵에 관한 기록이 많지 않다. 그러나 결핵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추측할 수 있다. 1918년 4월에 발행된 시라이시(白石保成)의 저서 조선위생요의(朝鮮衛生要義)에 의하면 조선은 한기 강력하고, 공기 건조하여 추위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상태 등에 의하여 폐결핵병 환자가 매우 많으며 1914년부터 1916년까지 3년간 진료를 받은 결핵환자 수를 보면 매우 많은데, 원래 민도가 낮은 조선에서는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은 결핵환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시라이시의 저서에 따르면 1916년 중 조선인의 호흡기병 사망자수는 61,159명이고 이는 전체 사망자수의 16.5%에 해당되며 그 대부분이 폐결핵이라 했으므로 당시에 결핵이 꽤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

이광수는 「문사와 수양」에서 “불량한 문사들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민족의 희망인 청년남녀에게 아편을 주사하고 독주를 먹여 그네의 덕성과 지혜와 용기와 건강을 마비합니다.”라고 설교하며, “결핵균이나 매독균 같은 작품을 民族中에 산포하는 문사는 결핵균과 매독균과 한 가지로 민족의 敵”⁵⁾이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광수의 병리학은 1920년대의 담론공간에서 결핵을 포함한 병에 대한 주도적인 인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코흐나 파스퇴르가 증명하고자 하였던 병인으로서의 세균감염은 특정한 세균이 몸 속에 침입하면 그것

3) 신동원, 『호환, 마마, 천연두 - 병의 일상 개념사』, 돌베개, 2013, 226-227면.

4) 『한국결핵사』, 대한결핵협회, 1998, 191-193면.

5) 이광수, 「문사와 수양」, 『이광수전집 16』, 삼중당, 1966, 25면.

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단순한 원리였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로서의 환자의 신체나 그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세균이라는 특정한 물질이 신체에 침입함으로써 질병을 불러온다는 것을 확인해 줌으로써 근대적 병리학의 구성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광수가 이러한 세균설의 배치 속에서 결핵균과 매독균을 공격할 때, 그는 근대적 시선을 지닌 주체로서 식민지의 담론장에 개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1928년 해주에 한국 최초의 결핵요양원이 세워진 것은 이러한 정치적 맥락과 과학적 결핵 인식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식민지 시기 결핵 환자를 위한 요양소는 치료를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인식되었다. 결핵에 대한 마땅한 치료약이 없으니 결국 환자 자신의 저항력을 높여 결핵을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병에 대한 대응이었고, 이를 위해 전문요양소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요양소 입원은 저항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환자는 요양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영양을 취할 수 있었다. 요양소가 보통 휴양지에 설립된 만큼 따뜻한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일도 가능했다. "휴식, 신선한 공기, 햇빛, 유능한 간호가 매일 기적"을 만들 수 있었다.

결핵 치료를 위한 요양소에 먼저 주목한 쪽은 의료 선교사였다. 1920년 3월 세브란스의 내과 교수 스타이스는 세브란스병원 구내에 한국 최초의 결핵 병사를 지었다. 나아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의 교직원, 학생 및 동문들은 1928년 10월 세브란스항결핵회를 창립했다. 학생들은 연극 공연인 <분극의 밤> 수익금을 결핵회에 기증하는 등 결핵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학생들 중에도 결핵 환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1928년 셔우드 홀이 해주에 본격적인 요양소를 설립한 것이 해주구세요양원이다.⁶⁾

해주구세요양원의 설립에 대한 당시의 소개글로는 잡지 『신학지남』에 실린 다음 글의 안내를 참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조선민족을 더욱 사랑하사 당신께서 귀히 쓰시는 사자를 우리나라에 보내서 우리들 가운데서 폐병으로 고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적 정신으로 사업을 하게 하셨으니 그는 곧 이제 소개하는 바 해주에 있는 구세요양

6) 박형우, 박윤재, 『사람을 구하는 집, 계중원』, 사이언스북스, 2010.

원의 주인공인 架樂 의사입니다. 씨는 전에 평양에 계셨고 현 평양연합기독병원의 설립자인 홀박사의 영식으로 이십년 전에 조선에 있을 때부터 특별히 폐병환자를 고쳐줄 만한 좋은 병원을 설립하려하는 한 훌륭한 이상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씨는 그 이상을 실현화할 목적으로 본국에 돌아가서 의학을 졸업하고 다시 캐나다로 가서 폐병결핵병원에서 전문으로 실습하고 우리 조선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씨가 조선에 나온 후 해주남산외 오리허에 기지를 정하고 구세요양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⁷⁾

이 기사에서 소개하는 의사 하락(架樂)이란 서우드 홀의 한글 이름이다. 해주구세요양원은 1927년 11월 황해도 해주의 남산 자락에 위치를 정하고 처음에는 1천6백여평의 대지를 매입, 1928년 10월 본관 건축이 준공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34년 현재의 입원사(舍)는 7동(棟)에 66개의 병실이 있고, 현재의 총건평수는 725평이다. 그 동안 임야 등은 몇만 평을 확보했으며, 바다를 내다보는 좋은 자리에는 임해관(臨海館)·임해루(樓)도 세우고, 농장·목장·화원, 그리고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백화점까지 설치되었으니, 당시 조선에서는 시설이 가장 좋은 요양원이었다. 요양원의 임원진은 이사장 하락(賀樂), 상무이사 이정우(李廷雨), 이사 양주삼(梁柱三), 김병서(金秉瑞), 전희철(田熙哲), 박성행(朴聲行), 홍순탁(洪淳倬), 변영서(邊永瑞), 감사 김종칙(金鍾則), 파로(巴路) 등이었다.⁸⁾

잡지『요양춘』 창간호에 실린 「10년간 사업개괄」이라는 기사는 해주구세요양원의 설립과 그 이후의 사업에 대한 소개를 행하고 있다. 결핵은 일제시대의 대표적인 질병이었다. 1920년대 세브란스병원 통계에 의하면 외래환자 중 30%가 결핵환자였으며, 전국적으로는 매년 5만명이 결핵으로 사망하였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해주구세요양원이었다. 이 요양원은 1928년 3월 기독교조선감리교회 선교사 하락의 창설로 개원되었다. 그는 1925년 4월 해주구세병원장으로 취임하였는데, 1926년 5월 감리교회 연회(年會)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그때 하락은 해주의 기후 풍토를 조사하여 결핵병환자에게 가장

7) 「조선초유의폐병치료소인 해주구세요양원을소개함」. 『신학지남』, 12(1), 1930, 81-82면.

8)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1994, 참조.

적당한 위치라는 설명과, 조선에 요양소 설치의 이유서를 본회에 제출한 결과, 기독교조선감리회의 자선사업기관으로 요양원 설치 승낙을 얻게 되었다.

1929년 12월 17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폐결핵전문병원 요양원방문기」라는 기사는 요양원을 방문하여 환자들의 일상을 관찰하며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남산에 오르내리는 소위 유람도로를 따라서 산등마루에 올라 약 오륙정 남으로 내려가면 붉은 벽돌로 보기 좋게 지은 곳이 곧 조선에 오직 하나인 폐결핵 환자 해주요양원이다. 시가를 떠나 있음이 그리멀지 아니하나 극기 고요하며 앞으로는 연평 바다가 넓어 있고 뒤으로는 울울한 산림이 바자를 이루어 있는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이다. 따뜻한 겨울 날 이곳을 찾아 당도하니 마침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환자는 호외(戶外)에 나와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 차이다. 혹은 벤치에 걸터앉아 신문을 보는 이 혹은 마른 잔디에 고요히 누워서 무심한 하늘을 치어다보고 있는 이 혹은 무거운 생각에 눌린 듯이 머리를 숙이고 이리저리 거닐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모양이 보인다.⁹⁾

기자는 물론 요양원이 온전히 병원장인 홀박사의 노력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된 후 처음 수용된 환자가 삼십 칠명이고, 이중 완치된 사람이 십칠명이나 된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어느 유지의 도움으로 곧 새 건물의 증축을 시작하여 앞으로 사오십 명의 환자를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몇 년 후 역시 『동아일보』에 실린 「해주시화」라는 기사는 “조선에는 매년 백 만 명이나 되는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바 이들의 난치병을 치료할 기관은 불과 수개소”라고 말하면서, 그 중 하나인 해주구세요양원은 지방의 자량이 거니와 다시 조선 아니 동양에서 알고 있는 우리 해주구세요양원이 사회각방면의 유지와 후원을 구하여 이에 숭선해서 조선내의 결핵환자 구출운동을 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하여도 장쾌한 사업이며 선도자 홀박사의 정신을 외경치 않을 수 없다¹⁰⁾고 전하고 있다.

9) 「肺結核專門病院 療養院訪問記」, 『동아일보』, 1929. 12. 17.

10) 「해주시화」, 『동아일보』, 1933.1.28.

2. 결핵의 낭만적 표상과 과학주의

식민지 조선에서 당대의 미디어를 지배한 결핵의 이미지는 지극히 낭만화되고 신화화된 결핵의 표상이다. 한국 최초의 결핵 환자들을 위한 요양원인 새너토리엄(sanatorium)이었던 해주구세요양원에 대한 탐방기사에서 전달하고 있는 것 또한 낭만화한 결핵의 이미지이다.

지금 여기 모인 약 50명의 환자를 보아도 모두다 얼굴은 백옥같고 손은 여인손 같이 아름답게 생겼고 눈에는 정채가 도는, 일견에 이 세상에서 몹쓸 사람들이 아니고 가장 쓸만한 아름다운 사람들임을 알 수 있겠다. 그네가 가을 달밤 유리창 밑으로 흘러드는 월광을 향하여 얼마나 애상의 눈물을 흘리는지요, 그네가 봄날 안개와 산골로 흘러 내릴 때 부용당가로 은은히 울리는 목동의 갈피의 소리에 얼마나 가슴을 썩이는지요, 환자의 평균 연령이 30과 40이라 하는 말을 들으며 그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¹¹⁾

결핵에 대한 낭만적 신화의 중핵적 이미지는 그것이 천재의 병이며, 아름다운 청년 남녀에게 발병한다는 점일 것이다. 폐병의 증상인 창백하고 파리한 외양은 미 혹은 미인의 조건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이었다. 이렇듯,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특정한 병을 둘러싼 사고방식이 이상하게도 합치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현저하게 ‘젊고’, ‘부귀한’ 재력과 지혜 있는 사람들을 폐병이 습격한다는 점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도록 한 것이다.¹²⁾ 잡지 삼천리의 기자가 직접 가서 확인한 요양원의 환자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대목은 결핵이 지닌 낭만적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만 이해가 될 수 있는 대목일 것이다. 그러나 결핵에 관한 이러한 낭만적 담론에 대해서, 또한 과학적 분석과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들 또한

11) 「結核患者의 파라다이스 海州療養院」, 『삼천리』 제7권 제1호 1935.1.1, 137면.

12) 福田眞人, 앞의 책, 128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인구 열두 사람에 하나씩 결핵병으로 죽는다. 그렇다고 그대의 결핵 걸릴 가능성이 열둘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부모와 환경과 이전의 건강 상태와 현재의 직업 등을 따라 결핵 걸릴 가능성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결핵병은 결핵균이라고 하는 미균 때문에 생긴다. 이 미균은 문명세계에는 없는 곳이 별로 없다. 따라서 문명세계에 사는 사람은 스무 살 전에 죄다 결핵균을 조금씩은 가지게 된다. 그러나 결핵균이 몸에 들어온다고 곧 결핵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문명국의 인구는 구할까지가 결핵균을 가지고 있으나 그 중에서 당장 결핵병의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일할 밖에 아니 되는 것을 보면 비록 결핵균을 가졌더라도 당장 해되는 것은 아니다.¹³⁾

미디어에 실린 이러한 주장은 결핵에 관한 낭만적 담론을 뛰어 넘어서, 과학주의에 기반한 대응과 치료를 역설하고 있는 내용이다. 결핵에 걸렸다는 것이 특별한 질환의 각인이 되어서는 안되며, 문명인이라면 모두 결핵균의 보균자라는 주장은 결핵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관리하려는 생명관리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결핵을 둘러싼 이러한 낭만적 담론과 과학주의에 기반한 주장의 이면에는 결핵에 대한 공포 역시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일본에서 결핵요양소의 설치에 대해 지역민들의 반대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1923년까지 설치가 결정되었던 18개소의 요양소에 대해서 14개 요양소 설치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그 지역에 따라 반대의 이유와 내용은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반대운동에 관여하였던 주민들이 결핵을 기피하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⁴⁾ 이러한 사정은 조선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함흥소학교장을 역임한 박정휴는 삼천리에 투고한 「청년의 생명과 결핵문제」라는 논설에서 결핵에 대한 조선민중의 무

13) 韋博士, 「結核病의 原因과 豫防」, 『동광』 제26호, 1931년 10월 04일

14) 青木純一, 「結核療養所反對運動と住民意識」, 『專修大學社會科學年報』, 제43호, 156면.

지를 규탄하며, “환자에 대한 동정심이 없는 것은 병에 대한 이해가 없는 所以려니와 또한 약한 심정에서도 나오는 태도로 볼 수 있으니 가령 환자를 위하여 설립하는 사나트리움이 또한 간접으로 예방에 중심기관이 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 설립을 방해함과 같은 민중이 있음을 그 一例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다.¹⁵⁾ 그에 따르면, “결핵요양소를 결핵의 전염원과 같이 생각하고 그 설립을 방해하는 민중”이 조선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해주요양원의 설립을 둘러싸고 지역에서 반대 운동이 벌어졌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지만, 당대의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요양원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보고와 찬사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은 당대의 생명관리의 장치로 도입된 것이 결핵요양원이며, 이 기관에서 수행하였던 것이 결핵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결핵에 대한 무지와 공포를 타파하는 것이었으리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주구세요양원에서 발간된 『요양춘』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양춘』은 결핵에 대한 의사들의 논문과 환자들의 투병기, 여배우 등과 같은 유명인의 격려편지, 그리고 문예 기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잡지에 실린 글들은 앞서 살펴본 낭만적 결핵의 이미지를 넘어 과학주의에 기반한 결핵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이 잡지가 문예를 포함한 기사들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고자 하였던 것은 결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중화시키고자 한 의도가 있었음에 틀림 없다.

『요양춘』 제 4호에 실린 경성제대미생물학 강사 허달의 「결핵균에 관하여」라는 기사는 이러한 과학주의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글이다. 이 글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보더라도 결핵은 인류의 창생과 같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금 약 사천년 전의 인도 고대서적에도 결핵에 관한 기재를 볼 수 있고 또 지나나 波斯의 고대문헌을 보더라도 다른 폐질 환과 확실한 구별은 없었지만 폐병에 대하여 논술함이 있다. 문화가 발달된 현금에 있어서도 폐결핵을 기부족이니 무엇이니 하여 비과학적인 막연하나

15) 박정휴, 「青年의 生命과 結核問題」, 『삼천리』, 1942.6.1.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결핵이 과학적으로 전염성을 가진 질병이란 것이 입증된 것은 그리 오랜 일도 아니다.”¹⁶⁾라고 결핵의 오랜 역사를 소개하며 과학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후 잡지 『요양춘』이 매호 발간시에 가장 중점을 기울여 게재하고 있는 것이 「폐결핵과 공기」(제1호), 「일광요법과 자외선 광선요법」(제2호), 「폐결핵과 ‘비타민」(제3호), 「결핵과 유전」(제5호), 「각혈과 그의 처치」(제7호) 등 결핵에 대한 예방, 요양, 치료에 대한 전문의사 들의 논문들이라는 점은 이 잡지가 지니고 있는 위상을 짐작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1938년 11월에 발간된 『요양춘』 제4집에는 ‘씨나토리움 우화’라는 코너에 「한담」이라는 글이 등장한다. 해주결핵요양원의 의사 중 한 명으로 보이는 필명 고소생(苦笑生)이 쓴 이 글은 결핵에 걸린 사람은 건강할 때와 전연 다른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병의 전염성을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주위의 간호인들을 곤란하게 할 때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그 실례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소위 지식계급에 속한 자로서 불행히 폐결핵에 걸리어 큰 공동이 있고 또 개방성이며 후두결핵을 병발한 자로서 물론 자기병이 진행되고, 담에 균이 섞인 줄로 알아서 담은 꼭 소독약을 넣은 타구에 뱉으면서도 간호인들이 ‘마스크’를 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만약 누가 ‘마스크’만 하면 몹시 나무라면서 병은 전부 타구에 받으니까 ‘마스크’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자녀들이 늘 곁에 있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어린애는 안어주고 싶어하고 입도 맞추고 싶어합니다.¹⁷⁾

결핵의 전염성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막상 자신이 결핵 환자가 된 후에는 그러한 전염성에 대한 자각이 흐려지면서 자신의 가족과 주변 간호인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기특한 가족애 골육애가 전인류사회에 도리혀 해를 끼치는 것이 적지 않다”고 말하며 “한 사회, 국가, 또는 전인류애적 입장에서 이러한 위험

16) 허달, 「결핵균에 관하여」, 『요양춘』 제 4호, 6면.

17) 고소생(苦笑生), 「한담」, 『요양춘』 제 4호, 18-19면.

한 병마를 퇴치하기 위하여 좁은 골육애를 초월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핵이 지닌 전염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맥락이다. 본래 결핵환자들을 위한 결핵요양소가 다른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결핵이라는 전염병을 지닌 환자를 격리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떠올려 본다면, 『요양촌』에 실린 이러한 한담은 요양촌의 일화를 드러내는 것이라기보다는 결핵에 대한 대중의 무지를 계몽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양촌』은 당대의 결핵에 대한 과학주의를 보강하고 결핵 치료를 당대의 생명관리의 차원에서 주도하고자 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잡지 『요양촌』이 보여주는 결핵 담론과 그 의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 보자.

3. 잡지 『요양촌』의 결핵 담론

최초의 결핵요양원인 해주구세요양원에서 발간한 잡지가 『요양촌(療養村)』이다. 『요양촌』은 1938년 5월 1일자로 창간된, 결핵 예방과 요양을 지도하는 보건잡지인데, 1940년 6월 통권 17호로 중단되었다. 판권장을 보면, 편집 겸 발행인은 하락(賀樂, Sherwood Hall)이고, 인쇄인은 김성균으로 되어 있으며, 인쇄소는 한성도서(주), 발행소는 해주구세요양원(海州救世療養院)이었고, 정가 10전이였다.

해주구세요양원 창설자이자 『요양촌』의 발행인인 하락(Sherwood Hall)이 쓴 『요양원』 창간호의 <창간사>에는 결핵의 탈당만화를 위한 과학적 인식에 대한 강조가 드러나고 있다.

폐결핵문제는 공장 수가 많아지고 교통이 대단히 편리하여 감에 따라, 공기는 더욱 더럽히고 많은 통학생들은 이 무서운 병을 전파시키기 쉽기 때문에 더욱 곤란하여 갑니다. 조선서 매년 40만 결핵환자가 늘어간다고 합니다. 또 우리 음식물중 중요저항력을 강하게 해서 적당한 식물과 공기유통과 일광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서도 폐결핵에 걸리기 쉬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중략> 우리 잡지 발간의 목적은 이 부단의 위협에 대한 최초의 예방지식을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물론 요양원 치료가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조선에 있어서는 환자수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요양원을 세우자면 아직 많은 시간을 소요할 것이며 따라서 요양원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구할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그것이 우리 잡지의 사명입니다.¹⁸⁾

하락의 논의는 조선에 창궐하고 있는 결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결핵에 저항하는 지식과 환경의 부족으로 인해 점점 더 병의 위험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다. 잡지의 발간은 결핵요양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결핵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지식의 보급에 있다는 점이 창간사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창간호에 실린 「대기안정요법」이라는 글에서, 해주구세요양원 주임의사인 이정우는 “폐병(폐결핵)은 세상에서 흔히 불치의 병이라 하여 사형선고나 받은 듯이 무서워 하고 환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비판하는 수가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당대의 결핵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대가 변하여 이제 폐병은 불치병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특히 결핵의 초기에는 대부분 나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며 결핵의 치료에 대한 원칙과 안정요법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¹⁹⁾

결핵에 대한 지식의 확산이라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지상치료원>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인의 질의의 이에 대한 전문의사들의 응답을 담은 섹션이다. 이미 창간호의 17쪽에 작은 박스기사로 “6월호부터 질의란을 두어 여러분이 결핵예방지식을 얻는데 또는 요양생활을 하시는데 되도록 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핵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물어주십시오.”라는 안내가 나타나고 있으며, 제2호인 6월호에는 <지상치료원>이라는 항목으로 일반인들의 질의에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결핵에 관한 질문과 응답의 란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도 일반인들의 투고를 받아 결핵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려는 시도가 창간호부터 발견되는 『요양춘』의 특징이다. 투고안내를 홍보하는 광고에는 “요양경험담, 요양일기, 요양생활의 수상, 수감, 결핵예방에 관한 의견” 등을 주제로 제시하며

18) 賀樂, 「창간사」, 『요양춘』 제1호, 4면.

19) 이정우, 「대기안정요법」, 『요양춘』 제1호, 12면.

독자들의 투고 방법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하고 있다. 이렇듯, 『요양촌』은 의학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사람들이 결핵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고 결핵 환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잡지였다.

『요양촌』은 특정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일차적인 독자로 상정하고 있는 잡지의 특성상 질병에 대한 계몽적 지식의 전달과 환자들의 정보 교환을 위한 담론 공간을 주요한 목차로 확보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에서 유일하였던 결핵요양소였던 <해주구세요양원>에서 정식으로 간행되던 잡지의 위상은 독자들에게 결핵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논의하고 정확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권위적인 담론의 공간으로서 독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이 잡지가 결핵이라는 주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위생과 질병에 대한 당대의 담론을 선도하는 일종의 의료정보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이 잡지를 단순한 결핵요양원의 기관지가 아니라 당대의 생명정치를 수행하는 장치로 파악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한다. 당대의 미디어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잡지 『요양촌』은 당대의 질병 관리에 대한 주도적인 담론을 이끌었으며, 총독부가 주관하는 질병 관리에 대한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제12호부터 마련된 <가정의학강좌>란은 의학과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차원의 정보들을 전달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도 환우들의 투병기나 퇴원한 사람들의 근황, 그리고 기성 유명 문인들의 문예 작품과 일반 투고자들이 개인의 감성을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글쓰기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점은 『요양촌』이 특정한 정보지가 아니라 당대의 일반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읽히는 잡지로서의 면모를 지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4. 잡지 『요양촌』의 글쓰기 공간

『요양촌』에는 실제 환자들과 의사들만 아니라 이태준, 임화, 박태원, 송영과 같은 기성 작가들이 시, 소설, 희곡, 수필을 쓰고 있다. 이들이 본격문학장이라는 안정된 문학제도의 승인을 일정정도 포기하고 특정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에 글을 쓴 것은 이들 자신이 폐병이라는 병의 메타포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들의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히 결핵에 대한 인식과 표상의 구체성을 확인하여 이것을 어떻게 시와 소설로 실천되었으며, 또한 이들이 해주요양원에서 발간된 잡지에 문예를 연재함으로써 얻고자 한 바와 문예를 통해 독자 대중에게 미치고자 한 영향을 살필 수 있다.

1930년대에 이르러 결핵의 병리학은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으로 분화된다. 모더니즘 텍스트에는 결핵과 성병 등의 질환과 그에 대한 의학적 지식 및 진찰, 처방, 치료, 약물의 복용 등이 가져다주는 근대적 지식체계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형상화되고 있다. 이상의 「공포의 성채」, 「지도의 암실」, 「공복」, 「각혈의 아침」, 박태원의 「악마」, 이태준의 「가마귀」, 이효석의 「프레류드」 등의 소설은 근대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과학의 지식과 수사, 어휘를 동원해 재현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양가감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근대적 지식의 표상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결핵의 낭만화와 관련을 지닌다면, 채만식의 『탁류』, 「병이 낫거든」과 강경애의 『인간문제』는 결핵을 탈낭만화시킴으로써 당대 사회를 조명하는 분명한 성과를 보여준다. 결핵이란 주체의 죄와 관련된 어떤 질병이 아니라, 식민지 사회의 저개발된 상황에서 발생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실이었음을 직시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채만식과 강경애의 소설이다. 이들에게 결핵이란 식민지 조선의 가난한 현실을 환기시키는 질병으로 표상되고 있다.

『요양촌』 창간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작가 이태준의 수필이다. 그는 「병후수제」라는 제목을 단 수필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몹시 이번 병을 겁내었다. 심훈(沈熏) 군이 바로 이 병으로 그 건장하기, 그것의 표본 같던 몸으로도 일 순간(旬間)에 죽어버린 것을 생각하매, 생각뿐 아니라 그의 죽은 몸 옆에서 경야(經夜)하던 것과 화장(火葬)하던 광경이 불

과 20일 전의 것이라, 꿈에도 자주 보이는 것은 그 광경이었다. 그런데다 누울 무렵에 자주 펼쳐보던 책이 『종교적 인간』이란 것인데, 그 저자가 권말에 적은 것을 보니 바로 또 이 병으로 요절된 청년 학구(學究)였다. 이런 불길스런 기억들이 나를 은근히 압박한 때문이다.”²⁰⁾

작가의 이러한 불안을 해소한 것은 완쾌에 대한 신념이었다. 그는 의사가 결핵의 치료에는 약보다 신념이 우선이라고 권유하면서, “신념을 가지십시오. 병은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련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을 전하고 있다. 병에 대한 치료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과학적인 치료가 아니라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에 있다는 인식과 주장은 잡지 『요양춘』의 권두에 나와 있는 결핵 치료에 대한 과학주의적 담론들을 일시에 부정하는 내용으로, 『요양춘』이 창간호부터 보여주는 복합적인 장면을 대변하는 대목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결핵이라는 질병에 대한 과학적 대응으로 시작된 결핵요양소와 그 요양소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발간된 잡지 『요양춘』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도록 만든다. 이들은 과학적 치료를 전파하는 기관으로 존재했지만, 한편으로는 환자들에게 그들이 보호받고 있고 가장 좋은 치료를 받고 있다는 신념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기관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임화는 『요양춘』 제 16집에 「잠 아니오는 밤을 위하여」라는 글을 실고 있다.

잠 안오는 밤은 결국 생각하는 밤이다. 생각한다는 것은 귀한 일이고 또한 때로 즐거운 일이다. 추억이라는 것은 병상에 누어 있는 사람에게 꽃밭을 거니는 것처럼 즐거웁고 아름다움다. 나는 때때로 달콤한 술을 먹은 때처럼 추억 속에 취한 일이 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불행히 각혈이라도 있을 때면 그전날 밤의 일이 무슨 흉악한 꿈처럼 무서워진다. 달고 아름다운 추억 속에 잠겨서 뜬 눈으로 밤을 세우던 자기를 생각하면 푸근한 자리위에 누워 죽음과 희롱한 사람을 연상하는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²¹⁾

20) 이태준, 「병후 수제」, 『요양춘』 창간호, 65면.

21) 임화, 「잠 아니오는 밤을 위하여」, 『요양춘』 제16집, 18면.

임화는 근 오 년 동안의 병상생활 동안 제일 괴로운 것이 잠오지 않는 밤이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그 병상생활이란 물론 결핵으로 인한 것이다. 그는 잠들지 못하고 밤을 세우고 난 후의 새벽에 찾아오는 것이 죽음에 대한 감각이었음을 밝히면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그 죽음의 공포와 슬픔에 저항하기 위하여 손에 든 것이 세르반테스의 『돈 키호테』였다고 말하면서, 돈키호테를 예찬한 토마스만에 대한 애정으로까지 번져간 자신의 독서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태소설과 내성소설의 종합으로서의 본격소설을 논하고 「신문학사의 방법」(1940)을 쓰던 무렵의 임화가 전하는 투병기와 심경 고백은 이 시기 임화의 내면풍경을 이해하는 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질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이 대목은 또한 질병에 맞서 싸우는 힘을 과학이 아니라 내적 위안으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는 한 무력한 정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박태원이 『요양촌』 제3호에 발표한 단편 「염천」은 미완으로 끝난 그의 첫 장편소설인 『청춘송』에 나오는 남수의 ‘다방개업좌절담’을 수정하여 발표한 소설이다. 이 작품의 후기에서 작가는 이 이야기의 구상을 다방 <낙랑>에서 이상에게 들려준 적이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신통치 않은 小品이나마,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이것을 죽은 이상에게 주고 싶다”²²⁾고 썼다. 작가는 이상에게 들려준 이야기라는 것만을 밝혔지만, 박태원 소설의 독자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다방을 열기 위하여 고심하는 남수가 작가의 절친 이상임을 짐작할 수 있다.

작품의 중심 인물 중 한 명인 이남수는 평양에서 아버지가 모종의 재판에 패소하자, 서울로 올라와서 다방을 열 계획을 세우고, 친구들에게 자금을 빌려서 다방의 개업을 준비하게 된다. 이상이 <제비>, <69>를 포함해서 여러 번 다방을 개업했다가 실패했다는 점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방을 개업한다는 것만이 남수를 이상과 연결시키는 단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설이 보여주는 남수의 ‘다방개업기’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상세하게 드러내주고 있

22) 박태원, 「염천」, 『이상의 비련』, 깊은샘, 1991, 170면.

다.

그러나 남수가 제법 자신을 가져, ‘종로통 삼정목 XXX 번지’ 이층집을 설명하였을 때, 경관은 선하품을 한 번, 하고

“저-, 그럼 게가 바로 전차길가 아닌가?”

“네-, 바로 그렇습니다.”

남수는 손에 든 모자를 잠깐 만지작거리며 대답하였을 때, 경관은 간단히 한마디,

“소꼬와 다메다!”

하고, 바로 전날 하던 그 말을 되풀이하였다.

(그럼, 전차길 가는 안된단 말인가? 허지만, 멕시코나 뽀나미나, 다아, 전차길 간데……)23)

남수가 경성에 다방을 개업하려 하지만, 경관에게 세 번이나 허락을 얻지 못하는 에피소드가 이 소설의 중심 서사를 이룬다. 이 이야기를 통해 경성의 식민지적 상황에 대한 알레고리를 읽을 수 있지만, 여기서 그 모델이 이상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이상은 오래도록 결핵을 앓은 환자였고, 그의 사망 원인도 결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폐결핵 환자들이 모여 있는 요양원에서 발간되는 잡지에 친우 이상의 이야기를 실은 박태원의 심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후로도 박태원은 잡지『요양촌』에 「왕자 호동」을 발표하고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을 번역하여 연재하는 등 주요한 필자로 활약하고 있다.

박태원은 단편 「악마」에서 질병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근대적 지식이 한 인물과 그 가족을 파멸로 몰아가는 인상적인 장면들을 보여준다.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으로, 어떠한 기회에 그 병을 얻을지, 이를테면, 조금 전에 반가이 악수를 하고 헤어진 사나이의 손에라도 그 추악한 균이 붙어 있어, 그것이 그대로 자기 손에 부착되고, 그 손은 또 아무 거리낌도 없이 자기의 눈을 부비어, 어떻게 그렇게라도 가장 손쉬웁게 실명을 하게 될지, 그것은 참

23) 박태원, 「염천」, 『요양촌』 제3호.

말이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니까, 학주는 자기의 눈이 갑자기 어찌 거북한 것만 같아, 속으로 당황하여 하다가, 문득 너무나 신경질한 자기 자신을 웃었던 것이나, 다음 순간, 이러한 방면에 아무런 지식도 갖지 못한 아내가, 두 어린 것을 데리고 그 위생 사상이 발달되지 않은 시골 본가에서 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것일까, 간단없는 위험이 그들의 몸에 임박하여 있는 것만 같아서, 학주는 그것을 지금 자기로서 아무렇게도 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기조차 하였다.²⁴⁾

박태원에 따르면 병리학에 대한 아무런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이 위생이 발달하지 않는 시골에 가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충분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병리학과 질병의 상관 관계에 대한 논의는 질병의 모더니즘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장면이라 할 것이다.

5. 생명정치와 근대적 주체형성

결핵이라는 병을 둘러싼 근대주의의 전개과정은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를 통한 식민지적 주체형성의 과정과 관련을 지닌다. 결핵 담론과 잡지 『요양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식민지 시기에 식민지적 주체가 탄생하는 양상을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총독부의 인구 조사사업부터 시작된 일제 식민통치의 관리술은 총동원체제의 국민후생사업으로 이어진 생명정치의 통치술이었다. 이는 식민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서 출발해 총동원체제의 멸사봉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이는 것처럼 식민지적 주체의 삶과 죽음 관리한 생명정치의 양상이었다.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조선인들이 서양의 과학에 근거한 치료를 받게 되면 그 효과를 보게 되어 문명개화를 쉽게 유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한 직후에 이 도시들에 병원을 설립하였으며, 이 병원을 통해 제국주의의 기능을 확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24) 박태원, 「악마」, 『이상의 비련』, 깊은샘, 1991, 97-98면.

일본은 조선 전역으로 병원을 확대해 나갔다. 제국의 통치자들은 병원 공간이 제국의 ‘경계선’을 확장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요컨대 전국의 자혜의원들은 ‘위생의 경계초소’로 기능함으로써, 메이지 일본이 만들어가려는 조선에 대한 ‘통치의 경계선’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²⁵⁾

정구영은 『삼천리』에 실린 「폐결핵과 외과」라는 글에서 “결핵요양원은 도회근처, 신선한 공기와 온화한 처소를 선택하여 숙련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치료케 하고 重輕환자를 구별하여 수용하고 동시에 충분한 액독을 실시하여 일반공중에 해독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근래 문명도시에서는 국가에서 법령으로 요양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朝鮮의 각도시에도 불원 이 법령이 실시될 줄로 믿고 있다.”²⁶⁾라고 쓰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결핵요양원의 필요에 대해 강조하였다. 해주구세요양원은 국가가 설치한 기관은 아니었지만, 제국주의의 통치와 기독교의 선교가 결합하여 설치한 통치의 장치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요양춘』은 결핵이라는 병을 다스리는 식민지의 관리자들의 담론과 결핵요양원에서 관리되는 주체들이 자신들의 육체를 인식해가는 과정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산출하는 장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결핵이라는 병을 둘러싼 근대주의의 전개과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를 통한 식민지적 주체형성의 과정과 관련해서 이해할 때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삶과 행위와 지식을 특정하게 조직·배치함으로써 주체성을 구성하는 복합적인 구조가 식민지/제국의 체제라면, 그 체제의 포획과정에서 개인과 체제 사이에 발생한 투쟁의 결과로 산출된 것이 식민지의 주체들의 참모습임을 밝히려 한 것이 식민지 근대의 주체성에 대한 연구의 한 양상이었다. 결핵이라는 병과 관련된 표상의 형성 과정에도 그러한 생명정치의 양상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해주구세요양원>이라는 기관은 근대의 과학주의와 기독교의 계몽주의가 결합하여 식민지 주민들에게 생명정치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식민지의 장치였던 것이다.

25) 이종찬, 『동아시아 의학의 전통과 근대』, 문학과지성사, 2004, 267-269면.

26) 정구영, 「폐결핵과 외과」, 『삼천리』 1938.1, 40면.

[Abstract]

Representation of Tuberculosis and Biopolitics—Focusing on the
Magazine Yoyangchon(Care Village)

Tuberculosis, was a typical disease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So the was built was the Haizhu Salvation recuperation Institute. Haeju sanatorium has been opened in the creation of a lowering of the missionaries of the Korean Methodist Church in March 1928.

『Yoyangchon(Care Village)』 is, doctor of paper and the patient's illness Symbol for tuberculosis, encouragement of the letter of celebrities such as actress and rests is literary article,. Articles that have been published in this magazine, has emphasized the need for awareness of tuberculosis that is based on scientific principles.

Magazine 『Yoyangchon(Care Village)』 has posted Tilt the most emphasis at the time of publication every issue, “pulmonary tuberculosis and air” (No. 1), “sunlight therapy and ultraviolet light therapy”(No. 2), “tuberculosis and vitamin”(No. 3), “tuberculosis genetic”(No. 5), “hemoptysis and his treatment”(No. 7), such as the prevention of tuberculosis, medical treatment, the treatment is that paper of professional doctor for , is sufficient to estimate the phase with this magazine.

The discourse space for enlightening the transfer of knowledge and patient information exchange of the disease was a major objective of 『Yoyangchon(Care Village)』. This magazine, for the sake of health and illness, had played a role as a medical information magazine to lead the discourse of contemporary.

『Yoyangchon(Care Village)』 is put not only the actual patient and physician procedure, but writers such as Imwha, Parktaewon, Yitaejun, established pick-up, novels, plays, essays. These it was a people who have closely related to the metaphor of the disease called lung disease. Through analysis of this work, it is possible to confirm the specificity of the representation and recognition for tuberculosis. In addition, by series a literary magazine that has been published in these give us Haeju sanatorium, it is possible to look around

the effects of trying to give the reader the masses.

Haeju sanatorium, the country was not in the installation and institutions, the rule of imperialism and the Christian missionary has the meaning of the apparatus of governance, which was installed in cooperation. 『Yoyangchon(Care Village)』 has a meaning as a place to calculate the talk over the process in which management has been mainly in the discourse and tuberculosis recuperation Institute of colonial administrators who govern the disease called tuberculosis continue to recognize their body.

Key words: Tuberculosis, Yoyangchon(Care Village), Haeju sanatorium, representation of the disease, Biopolitics, Imperialism.

참고문헌

□ 자료

『요양촌』, 『별건곤』, 『삼천리』,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신학지남』
박태원, 『이상의 비련』, 깊은샘, 1991,
이광수, 『이광수 전집』 1~20, 삼중당, 1964.
이태준, 『이태준 문학전집』, 깊은샘, 1995.

□ 단행본

김수근, 『한국잡지사 연구』, 한국학연구소, 1992.
박기현, 『한국의 잡지출판』, 늘푸른소나무, 2003.
박운재, 『한국 근대 의학의 기원』, 혜안, 2005.
신동원, 『한국 근대 보건의료사』, 한울아카데미, 1997.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몸과 의학의 한국사』, 역사비평사, 2004.
이종찬, 『동아시아 의학의 전통과 근대』, 문학과지성사, 2004.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福田眞人, 『結核の文化史-近代日本における病のイメージ』, 名古屋大學出版會, 1995.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1963.

□ 논문

송희복, 「윤동주의 삶과 시를 보는 관점의 확대와 심화」, 『국제언어문학』 36호, 2017.,
신동원, 「公立醫院 濟衆院, 1885-1894」, 『韓國文化』제16집, 1995.
신동원, 「세균설과 식민지 근대성 비판」, 『역사비평』, 2002년 여름호.
이경훈, 「아스피린과 아달린」, 『한국근대문학연구』, 2000. 12.
이승원, 「20세기 초 위생담론과 근대적 신체의 탄생」, 『문학과경계』, 2001. 5.
임병권,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에 나타난 은유로서의 질병의 근대적 의미」,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17, 2002. 12.
정근식, 「일제하 서양 의료 체계의 헤게모니 형성과 동서 의학 논쟁」, 『사회와 역사』제
50권, 1996.
조형근, 「식민지와 근대의 교차로에서-의사들이 할 수 없었던 일」, 『문화과학』29호,
2002.

차승기, 「"사실의 세기", 유연성, 협력의 윤리」, 『민족문화사연구』 38, 2008.

허병식, 「폐병쟁이들의 근대 - 한국근대소설에 나타난 결핵의 표상」, 『한국학연구』32, 2015.

이 논문은 2018년 4월 8일 접수되어 4월 22일까지 심사받아 4월 23일 게재 확정됨.

